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했다. 응모작 중에는 과학, 고전, 교양, 로맨스 판타지 등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도서들이 많았다. 명망 높은 곳에서 이미 수상한 작품도 있었다. 그중 10종의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재미’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기준은 각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작들도 모자람이 없었다.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는 공모명의 취지에 따라 국내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선정했지만, 우수한 해외 만화를 컬러 인쇄하여 제작 출간한 출판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번역서도 1종 포함하였다. 또한 지원작 중 웹소설 비중이 적어, 그 비율을 감안하여 만화 9종과 웹소설 1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린당: 비늘 고치는 집』은 동양풍의 판타지를 표방하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이다. 『또!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는 방대한 의학지식을 가벼운 학습만화를 다루듯 잘 풀어냈다. 『원룸 조교님』은 상처받은 인물의 치유와 성장을 경쾌하고도 섬세하게 그려 낸 수작이다. 『미래의 골동품 가게』는 한국의 신화와 설화에서 온 인물들을 차용하여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 냈다. 『꼬마비 만화 전집』은 10년이 지나도 명작임을 스스로 증명한 뛰어난 작품이다.

또, 『양아치의 스피치』는 쉽지 않은 주제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꽃은 거기에 놓아두시면 돼요』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꺼내 보였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는 웹소설의 모든 전형성을 조금씩 비껴가거나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결국 독자적인 세계를 훌륭하게 구축해 냈다. 『마법사랑해』는 훌륭한 표현력과 연출이 돋보이는 판타지 만화이며, 마지막으로 『황금동 사람들』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를 만화적인 표현 방식으로 슬기롭게 풀어 나갔다.

선정된 도서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각 선정작만의 개성과 의의를 놓고 보니,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을 선정했지만, ‘재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수상을 기대했던 작품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2024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부문 심사위원 일동
박용수 집필

『꼬마비 만화 전집』 (세트)

출판사: 글의온도/ 네이버 웹툰(연재 종료)

작가: 꼬마비

심사평: 정무늬(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웹소설창작전공 겸임교수)

작품을 읽고 쓰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이 소설, 10년 뒤에도 팔릴까? 이 이야기가 10년 뒤에 봐도 재미있을까? 그때도 매력적일까?”

대답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자고 나면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진다. 말 그대로 물량 공세. 웹소설, 웹툰은 물론 드라마, 영화, OTT에 유튜브까지, 현란한 볼거리가 매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몇 년은커녕 찰나라도 주목받을 수 있다면 행운일 것이다.

『살인자○난감』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때, 원래 만화 애호가였던 나도 이 작품의 재미와 작품성에 단단히 매료됐다. 단조롭고 귀여운 그림체의 ‘네 컷 만화’가 주는 비범한 긴장감. 보는 내내 스토리를 나름대로 추리하며 따라갈 만큼 엄청난 몰입감을 준 작품이었다. 다시 본 지금도 짜릿하고 여전히 신선하다. 하지만 14년 후 다시 발견되고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져 이토록 사랑받을 거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꼬마비 만화 전집』은 고작 네 컷의 연속인 작품 속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제한하지 않는다. 대표작 『살인자○난감』(2010)을 시작으로 『S라인』(2011), 『미결』(2014) 등 죽음 3부작과, 『테우스 엑스 마키나』(2018), 『환상의 용』(2021) 등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된 전집이다. 형식의 단조로움 너머로 심리를 묘사하고 서사를 전개하며 치밀하게 연출한다. 가끔씩 무심하게 툭 던지는 철학적 사유와 느닷없이 빈틈을 찌르는 유머 코드까지 무엇 하나 남은 곳이 없다.

먼저 『살인자○난감』은 시종일관 반전이다. 무난하고 평범한 대학생 이탕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지연된 정의’나 ‘사적 보복’의 인과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정작 이탕의 동기는 정의도 보복도 아닌 그냥 실수였을 뿐이다. 『S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세상의 이야기이다. 권력과 종교의 위선을, 미디어와 언론의 기만과 대중의 편견 모두를 유쾌하게 조롱한다. 센스 넘치는 말장난의 재미도 놓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산 ‘레어템’이지만 사실은 미래에서 온 고호 피규어가 말을 걸어 오거나(『미결』), 신이 강림한 세상은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던지시 묻고(『테우스 엑스 마키나』), 만약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를 이름조차 없는 주인공이 물어 온다(『환상의 용』). 이야기마다 형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발상이 가득하다. 때로 강렬하고 때론 나른한 흐름의 호흡 조절 또한 발군이다.

오늘날 창작자들의 제법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마도 ‘이 소재,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사회적 물의라도 일으키면 어찌지?’ 아닐까. 매 순간 표현과 묘사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부지불식간 스스로를 재단하고 상상력에 제동을 걸기 쉽다. 『꼬마비 만화 전집』은 작가만의 배짱과 자유로움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거침없다고 고민하지 않았을 거란 의미는 아니다. 작품 곳곳에 매설된 실존적 의문을 풀어가는 형식은 더없이 도전적이다. 아마도 1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의 입길에 오르내릴 것이다.

사실 드라마 원작으로 화제가 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심사한

것 아니냐는 눈총이 얹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배제하는 것 역시 차별 아니냐는 물음이 던져졌다. 작가의 배짱과 작품의 상상력에 건주어 심사위원의 자기검열은 얼마나 초라했던가.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 묻는다. 시간이 흘러도 이토록 빛나는 작품의 생명력에 대해서.

『꽃은 거기에 놓아두시면 돼요』

출판사: 바람북스

작가: 캥탱 쥐티옹(저)/ 오승일(역)

심사평: 전세훈(웹툰협회 회장)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굳이 꺼내어 보이고 싶지 않으며 피할 수 없는,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면에서 캥탱 쥐티옹 작가는 용감했고 현명했다. 대중적으로 호응받기 어려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쓰고 그렸다는 점에서 용감했으며, 그가 서술에 있어 첫 페이지부터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며 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현명했다.

시반이 잔뜩 드러난 노년의 시체가 붉은 꽃처럼 피어났다. 이제 막 죽음을 맞아 입던 환자복이 벗겨져 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이라며 시체가 낸 생리적 소리에 두 간호사가 깔깔대며 웃는다. 웃지만 단순한 웃음이 아니다. 이제 막 죽은 부인의 처지가 그렇고, 그걸 또 뒤치다꺼리하는 자신들도 우습다. 남들은 미쳤다 할 만한 일이다. 요양원에는 가족들도 어쩔 방법이 없어 맡겨진 노년의 환자로 가득하다. 각자가 살아 온 인생이 투영되고 굴절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한숨이 멈출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 곧 나의 혹은 내 가족의 이야기여서다.

독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작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 온 인생 궤적을 벗어날 수 없었듯이, 누구도 인생에서 마지막을 거쳐야만 한다. 고인의 몸을 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고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인 간호사의 이야기다. 고인이 남긴 물건 중 하나라도 보관해야 추모와 더불어 자기가 해 온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깊이 환자에게 빠져들어 불화도 겪지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해라 믿는다. 밖에서 보기에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녀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마지막을 동행해 주는, 지상에 내려온 천사들이다. 그런 주인공 에스텔도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입소한다. 자신이 돌봐왔던 환자들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 과거의 영광이든 절망이든, 모든 이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 지금의 삶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꽃은 거기에 놓아두시면 돼요』의 작가 캥탱 쥐티옹이 2023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수상 작가인 것은, 작품이 남긴 울림에 세계인이 공감한다는 뜻이다. 나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순간은 가까이 있다.

『또!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출판사: 한빛비즈	작가: 압둘라(정소영)
-----------	--------------

심사평: 이봉석(대원씨아이 콘텐츠1사업본부장)

보통 어떠한 지식을 본인이 이해할 정도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아는 것은 그 깊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식을 ‘재밋게’ 흡수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지식 소매상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

이 작품의 저자인 압둘라야말로 해부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학과 교수가 인정할 만큼, 위에서 말한 가장 완벽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대생 정도나 되어야 머리 싸매고 원서를 펼쳐 가며 외워야 할 방대한 정보를 마치 가벼운 학습만화를 다루듯 능수능란하게 주제별로 ‘썰’을 풀어 나간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눈높이 역시 어릴 적 평범하게 자라 온 사람에게 맞춰 있어, 오히려 평소 잡기(만화, 애니 혹은 게임)를 등한시하고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일반서를 볼 때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온갖 서브컬처 캐릭터들이 등장해 자신의 설정과 잘 맞아떨어지는 해당 분야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정보나 지식을 한 권에 맑게 희석해 내보내는 일부 학습만화 형식의 도서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작품은 알짜 지식을 쉽게 전달하면서도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아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마법사랑해』 (세트)

출판사: 채담/ 네이버 웹툰(연재 중)

작가: 명랑(글)/ 청설모(그림)

심사평: 박용수(마이디팟 대표)

“마법사랑해”라는 제목에서 주인공이 마법을 사랑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한 장씩 넘겨 보니 주인공의 이름이 랑해였다. 그래서야 마법사 랑해의 이야기라는 것이 짐작됐다. 전형적인 판타지 만화가 그렇듯, 보통 판타지 작품들은 복잡한 세계관을 친절하게 독자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작품 또한 다르지 않다. 괴수와 반인간,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관, 그리고 현실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넘나드는 차원 이동 등이 등장한다. 제주도의 차원 이동 등 의아스러운 장면이 있음에도, 이 작품은 장점이 많다.

이 책은 랑데르케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대륙의 위대한 마법사 랑데르케셀은 제자 모잔의 부탁으로 마왕을 죽인다. 마왕의 사체를 여섯 개로 나눠 대륙 곳곳에 봉인하여 대륙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대마법사는 마왕과의 전투에서 얻은 후유증으로 죽는다. 600년 후, 모잔은 환생 마법사로 거듭나 불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잔은 랑데르케셀을 그리워 한 나머지 그를 환생시키는데, 그렇게 탄생한 아이가 주인공 랑해다. 마왕의 봉인이 풀려 마법 세계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모잔은 랑해를 현실 세계의 제주도로 차원 이동시킨다.

악마의 심장을 가진 천진난만한 아이, 대마법사의 환생으로 태어난 랑해. 마법사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는 타고난 마력 덕분인지 엄청난 마법을 구사한다. 랑해는 친구들과 마법 여행을 떠났다. 마법 세계에서 벗어난 그가 한국의 제주도로 차원 이동해 겪는 에피소드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이 작품은 선악 구도라는 전형적인 판타지 세계의 구도를 따르고 있지만 만화가 그려내는 이야기는 따뜻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다. 작가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보여 주며, 선의 근원과 악의 근원이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하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어서 결말이 기대된다.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단연코 훌륭한 표현력과 연출력에 있다. 청설모 작가의 개성 있고 독특한 만화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처럼 뛰어난 그림체를 가진 작품이 앞으로 더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작가의 만화는 생동감이 넘치며, 판타지 세계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부담 없이 만화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골동품 가게』 (세트)

출판사: 들녘/ 네이버 웹툰(연재 중)	작가: 구아진
-----------------------	---------

심사평: 전세훈(웹툰협회 회장)

개인적으로 구아진 작가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 발견은 행운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멋지게 어우러진 연출은 작가의 단단한 내공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오컬트 작품이 여럿 있지만 이만큼 대중적 요소와 충격적인 연출로 흡입력 있는 작품은 보기 드물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 오컬트 분야에서 K-컬처의 한 파트를 촉발한 작품이다. 이만한 작품이 준비되기까지 작가는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듯하며 그것이 빛으로 발하여 많은 호응과 갈채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연이어 여러 상을 받았다. 이번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에도 충분히 1등에 들 만한 작품이지만, 여러 수상 경력이 있어 오히려 양보했다고 봐도 좋다.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에 기반을 둬으로써 독자적인 지평을 열었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 한국의 신화와 설화에서 나온 인물들과 무당 ‘진령군’ 같은 실존 인물을 차용했다. 한국적 세계관 위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귀신을 물리치며 악에 맞선다는 정통 퇴마 서사구조를 구축했다.

작가로서 다른 작가의 작품에 평을 내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많은 독자가 인정한 작품이기에 부담이 덜할 뿐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뛰어난 작품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한국적 오컬트를 이 시대 새로운 주류로 이끌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구아진 작가의 분투에 응원을 보낸다. 멋진 작가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

출판사: 다산북스/ 네이버 시리즈(연재 종료)

작가: 서사회

심사평: 정무늬(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웹소설창작전공 겸임교수)

웹소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 익숙한 독자에게 낯선 즐거움을 선사한다. #협관 #피폐물 #후회남 #상처녀 #복수 등 키워드만 놓고 보면 웹소설의 성공 법칙을 답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측은 1화부터 보기 좋게 빗나간다. 회·빙·환(회귀, 환생, 빙의)은 물론, 마법도, 사이다 전개도 없다. 단순히 ‘협관(협오 관계)’으로 시작해서 차츰 사랑을 확인해 가는 예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전쟁과 혁명을 다룬 배경 또한 심상치 않은 도전으로 다가온다. 남녀 주인공 캐릭터는 무겁고, 음습함이 느껴질 만큼 어둡다. 하지만 어느 것도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강렬한 자성을 뿜는다. 이미 한 페이지를 펼쳤다면 독자는 이 작품에서 놓여날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는 웹소설의 모든 전형성을 조금씩 비껴가거나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결국 독자적인 세계를 훌륭하게 구축해 낸 수작이다.

캐릭터를 들여다보자. 짐승처럼 학대당하며 스파이로 키워진 남자 주인공 하이너는 여자 주인공 아네트의 아버로부터 모든 걸 잃는다.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복수를 멈추지 않는다. 사령관이 된 그는 혁명의 상징이고 깃발이다. 아네트는 왕가의 핏줄을 이은 ‘왕정의 상징’이다. 왕국의 몰락과 함께 부모, 권력, 경력은 물론 사랑까지 잃는다. 하이너의 사랑이 복수를 위한 정교한 위선이었음을 깨닫고 끝없이 무너져 내린다. 잿더미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의지조차 잃은 아네트, 당연하게 누려 왔던 일상이 특혜였고 누군가의 피와 눈물값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하이너 또한 트라우마 속에서 울부짖던 가해의 실체를 이해하고 시대가 만든 고통을, 그 속에서 살아 온 서로의 아픔을 마주한다. 태생적 증오를 속죄와 용서로 극복하고 서로의 삶을 수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문장은 웹소설이라기보다 출판문학에 가깝다. 작품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의 분위기와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심리묘사는 발군이다. 스토리에서 ‘사이다’를 생략하고도 이런 흡인력을 보여준다니, 이렇게 쓸 수 있는 작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주제 의식이 돋보인다는 점도 이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작품은 독자에게 자꾸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진다. 자칫 흔하거나 낡아 보이기 쉬운 ‘사랑’과 ‘용서’가 이야기 전체를 우직하게 관통한다. 작가는 단단한 필치로 서사를 직조하고, 작품의 의의를 치열하게 증명해 낸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숨은 재미일지 모른다. 여기서 ‘나’는 누구였을까, 또 진짜 ‘억압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완결에 외전까지 읽은 독자에게 작가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수린당: 비늘 고치는 집』 (세트)

출판사: 재담	작가: 일링스
---------	---------

심사평: 이봉석(대원씨아이 콘텐츠1사업본부장)

동양풍의 판타지를 표방하고 나서는 작품 중 상당수는 그 소재나 설정으로만 살짝 맛을 보이고는 곧 흔하디 흔한 액션이나 드라마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린당: 비늘 고치는 집』은 그런 알팍한 작품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상당히 공을 들인 듯한 도교적 설정에, 현시대에 맞춰 배치된 캐릭터들의 발랄한 사고가 묘한 엇박자를 이루며 보여주는 전개가 주된 재미 요소이면서도 거기에 더해 전통적인 여성향 코드도 충실히 담아낸 상업적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천계와 인간계의 적절한 시각차이다. 옥황상제를 비롯한 천계의 신들과 수린당의 자매들의 관계에서 자연스레 현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 구조를 떠올리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 작품 속 천계의 신들은 기존 고전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매우 개어 있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려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수린당의 차녀 홍실의 눈에는 여전히 고루해 보여 답답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 과거 수린당을 있게 했던 선대 자매가 처음 봉황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생계 걱정할 일 없는 일거리와 성군을 잉태하는 어미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는 호사였을지 모르지만, 현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운명은 가혹한 굴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만화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제책 방식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 있는 요소다. 웹툰 단행본으로는 생소한 커버형 노출 사철 제본 방식인데 마치 고전 원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이 작품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여담으로 만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보면 볼수록 열화가 심해지는 기존 만화책의 특성상 감상용, 보관용 등으로 같은 책을 여러 권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여러 번 읽음으로써 책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는 최소한 없겠다는 점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이 사는 세계의 크기

“땀, 유행어, 은어, 신조어, 비속어, 비문 없이 15분 이상 나랑 대화할 수 있다면 사귄게.”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웹툰의 한 컷이 최근 트위터에서 유행했다. 다들 그 작품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재미있고 참신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면 고백에 망할 듯’이라고 하며, 15분은커녕 1.5초 만에 말할 수 있는 땀과 유행어로 된 고백 대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은연중에 우리의 언어가 뭔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MZ세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언어는 본래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세대, 계급, 민족, 종교, 사회, 국가를 구분하고 외부를 배척하며 내부를 결속하는 역할도 해 왔다. 영국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한국 양반들은 한문을 사용했고, 일본 궁중어는 서민들이 알아듣기 힘들었다. 어떤 사투리는 경멸을, 어떤 사투리는 숭배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특정 말투가 생겨난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원래 그렇다며 넘겨 버리기엔 요즘 양상은 좀 특이하다.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땀으로만 소통하고, 별것을 다 줄인다. 이러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트위터에서 유행했던 저 한 컷이 바로 웹툰 『양아치의 스피치』에서 나왔다. 남고생 이솔은 한눈에 반한 여고생 송이도에게 고백을 하지만, 송이도는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건다. 이솔은 자신이 말을 못 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송이도 같은 부류의 같은 말도 굳이 어렵게 쓰려고 한다 여겼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있나?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가짓수가 적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에겐 바로 그 ‘뜻’ 자체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생각할 도구가 없었기에, 생각은 회박해지고, 마치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인형처럼 소리 자극만 주고받으며 소통이라고 여겨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는 사랑이었다. 송이도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서 그녀를 더 알고 싶고, 자신을 더 알려주고 싶어졌다. 대화하고 소통하고픈 마음이 커지면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감정들이 생겨났다. 복잡하고 모호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이 마음속에 고였지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 답답해졌다. 드디어 뜻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이솔은 자신에게 고이기 시작한 낯선 생각과 감정들을 적절한 언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이 만화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고루하게 ‘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며 훈계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무조건 한 쪽만 변하기를 촉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으로 선정될 만큼 유쾌하고 재미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작가 네온비와 김인정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 땀과 은어, 비속어를 다 제거하고 진지하게 글을 썼는데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의 글이 완성된 장면에서 폭소했다. 아마 대학교 1학년생들의 리포트들이 떠올라서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이 작품에는 절묘한 균형과 화해가 담겨 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 말투가 다소 고루하고 소통이 느려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송이도는 이솔 덕분에 비언어적 소통도 읽을 줄 알게 되고, 땀의 재미도

깨닫게 되어 다른 이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술을 싫어하던 송이도의 사촌도 이술의 유연성 있는 태도에 변하고, 송이도의 할아버지도 이술에게 SNS를 배워 인스타그램 시인으로 거듭난다. 치사한 노림수를 써서라도 송이도와 사귀는 것만이 목표였던 이술은, 자기 생각을 남김없이 전달하는 언어를 갖추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사랑에 빠진 한 소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력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결국 이술은 15분 동안 자기 생각과 감정을 스피치하며 송이도에게 고백하고, 그 결과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올해를 대표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데 시의성까지 있다니, 지금 한국의 중요한 한 단락을 본 느낌이다.

『원룸 조교님』 (세트)

출판사: 거북이북스/ 피너튼(연재 중)

작가: 지붕

심사평: 전해정(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웹소설창작전공 교수)

일상에서의 환대를 통해 치유를 말하는 BL 코미디

『원룸 조교님』은 상처받은 인물의 치유와 성장을 경쾌하고도 섬세하게 그려 낸 수작이다. 피너튼 플랫폼에서 연재되어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이 웹툰은 BL, 즉 ‘보이즈 러브(Boys’ Love)’ 장르에 속해 있다. 장르에 대한 선입견으로 감상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기울여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야기는 일명 아싸(아웃사이더) 대학원생 조교 우진형과 그에게 당돌하게 고백한 학부생 송우윤의 동거로 시작된다. 우진형이란 인물은 ‘결함의 스키마’가 있는 인물이지만, 처음에는 그의 이런 본모습을 전혀 알 수 없다. 그의 모습은 여러 번 달라진다. 조용하고 내성적으로만 보이던 첫인상에서, 동거를 시작하자 짓궂은 장난을 거둬주는 코믹한 인물로 변한다. 오로지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여긴 송우윤은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쁘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도 모습 전부가 아니었다. 우진형은 까칠하고 신랄하기도 했고, 남을 경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작은 실수에 크게 무너지는 인물이었다.

우진형은 아버지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자존감이 희박한 인물이다. 모든 책임과 시선, 관계에 지나치게 긴장하고, 인정받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자신에게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 실망하고 비웃기 전에 사람들을 밀어낸다. 작은 실수에도 인생이 송두리째 실패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고, 독한 말로 자신을 비난하며 학대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던 말이다. 따라서 이런 그는 처음부터 송우윤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용하고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우윤의 변함없는 애정으로 인해 그의 일상이 사소한 환대로 가득 차게 된다. 지지해 주는 말, 존중하는 눈빛,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 매일 같이 먹는 따뜻한 밥과 신경 쓴 반찬, 이런 것들로 우진형의 삶의 밀도가 치밀해진다. 우진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오해를 풀기도 하고,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도 하며 용감해진다.

이렇듯 송우윤의 사랑과 우진형의 성장은 감동적인 서사를 완성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따뜻한 휴먼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겠다. 하지만 『원룸 조교님』이 걸작인 진짜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와 메시지가 정신없이 웃기는 코미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코미디란 장르는 그냥 개그가 아니라 이런 것이었다. (‘조교’를 중의적으로 쓴 것만 봐도 예상이 되지 않는가?) 만화적 연출과 과장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작화, 재치 넘치는 코믹한 대사, 다소 과감한 19금 개그, 기본 설정은 BL 장르의 관습을 따라 속도감 있게 배치하면서도, 보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이르러서는 치밀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연출된 모든 장면에서 감탄이 나온다. 대학가의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디테일과 대학원생 밈은 현장성을 배가한다. 이 작품이 지붕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 사소한 환대들이 모이고 얹혀 삶에서 추락할 때 받쳐 주는 안전망이 된다. 19금, 게다가 BL 장르이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을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황금동 사람들』

출판사: 우리나라비

작가: 박건웅

심사평: 박용수(마이디팍 대표)

“어느 대학교 창고에 층층이 쌓인 금정굴 학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 사진을 보고 마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사를 그래픽 노블로 표현하는 박건웅 작가의 두 번째 장편만화, 『황금동 사람들』.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말이다.

출판사가 제공한 책 소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어느 야산에 위치한 금정굴은 일제 강점기 시절 금광이었다가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장소로 바뀐다. 안심하라는 정부를 믿고 피난을 채 못 떠난 한강 북쪽의 시민들은 인민군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서울 수복 후, 경찰과 반공 단체가 ‘빨갱이 색출’에 나섰고 어쩔 수 없이 부역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곳 금정굴로 끌려와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정작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들은 인민군과 함께 월북했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부역자의 아내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으로 모함해 죽은 사례도 있었다. 그 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후손들은 ‘빨갱이의 자식’으로 낙인찍혀 평생을 연좌제로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 1995년 유족들은 비용을 들여 금정굴을 파헤쳤다. 수백 구의 유골이 나오며 금정굴의 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만화는 아픈 과거사를 풀어헤친 작가의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 일산 황금동에 사는 주민들은 1995년 이전의 기억이 없다. 이름도 모른다. 그 아파트 주민 모두 1995년에 이사 왔고, 이름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간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잃어 나갈수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작가는 독자들이 예상하는 결말을 슬기롭게 풀어 나갔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만화로 가볍게 읽을 수 있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비극적인 결말을 전제한 이야기에 대중의 호응이 덜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겠다. 현실이 팍팍한데 만화에서까지 팍팍해서야. 외면하기 쉽다. 이 작품은 독자의 부담을 감안해서인지 해학성과 만화적 표현 등을 적절히 사용해 보는 부담을 줄였다.

이 작품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될 소지가 컸지만, 만화적인 방식으로 또 풍자로 표현해 냈다. ‘황금동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는 서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금정굴 사람들을 보는 듯하다.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떠도는 영혼을 달래 주는 이 만화는 여전히 좌우대립이라는 낡은 이념 대결 앞에 놓인 우리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다.

심사 과정에서 이 작품이 선정작으로 오르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작가의 작품세계도 『노근리 이야기』, 『그해 봄』, 『짐승의 시간』 등 그의 대표작에서 이미 알려진 바대로다. 그는 평생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담아낸 작품을 연이어 그려 왔다.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